

한국과 이란의 재생에너지산업 경제협력

김애정

최근 몇 년 동안 석유, 천연가스와 같은 화석 연료 고갈, 기후 변화, 에너지 수요 급증과 같은 문제에 직면하여 전 세계적으로 새로운 에너지원 개발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란은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 화석 연료 의존도를 낮추고 에너지 안보를 개선하며 전력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대안으로 재생에너지 산업에 대한 투자를 늘려왔다. 이란의 재생에너지 산업은 태양광 발전이나 풍력 발전과 같은 재생에너지 확보에 유리한 자연 조건을 (상대적으로 풍부한 일조량과 바람 자원) 가지고 있어 무한한 성장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특히 2015년 p5+1 (중국, 프랑스, 러시아, 영국, 미국, 독일)과의 핵협정 후 로하니 정부의 재생에너지 개발에 대한 외국인 투자 유치 노력으로 이란의 재생에너지 투자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었고, 이에 따라 한국 기업들도 2016년 이후 이란의 풍력, 태양광 발전소 건설 사업 계약을 체결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2018년 트럼프 행정부의 일방적인 핵협정 탈퇴 후 미국과의 정치적, 군사적 대립 고조와 대이란 경제, 금융 제재 재개, 이라크, 시리아, 예멘 내전과 같은 지역 갈등으로 정치적으로 불안한 상황이 이어져 오고 있으며 이는 해외 투자자들에게 높은 정치적, 경제적 부담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번 발표는 재생에너지 분야에서의 한국과 이란의 협력을 모색하는 것을 목표로 SWOT 기법을 통해 한국과 이란의 재생에너지산업 협력 상황과 가능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김애정 박사는 이란 테헤란 대학교에서 "Political Economy and Foreign Relations between South Korea and Iran" 의 논문으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은 후 현재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에서 강의를 하고 있으며, 이란의 정치, 경제, 한국과 이란의 외교 관계, 이란의 과학 기술 산업, 중동 에너지 안보 등을 연구하고 있다. 저서로는 "The Foreign Relations of Iran and South Korea: Separation of Economy and Politics", "The Effects of the US Hegemony on Economic Growth in East Asia, and the Middle East and North Africa" 외 다수가 있다.

Date & Time: June 11th (Tues.) 2019, 12:00-13:00

Place: Asia Square (3F), SNUAC (Bldg#101)